



3면

"최저기준 보장, 적정기준 지향"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음 12월 22일) 제27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4차산업혁명 대응 · 생태문명 시대 선도

전북도, 올해 11대 핵심프로젝트 본격 가동

탄소중립 · 전북형 그린뉴딜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산업진흥원 조기 안정화 · 군산형 일자리 등 추진

전북도가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시대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탄소중립 체계 및 탄소 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 등의 정책과제가 더해져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최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목표, 쟁점 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도는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위해 '2050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추진 체계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 변화대응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또, 전북형 환경부문 그린뉴딜 과제,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성연소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노후 경유차 저감 해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저감 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올해 미세먼지 농도를 22ug/m<sup>3</sup>까지 낮추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준공,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확산단지(2.4GW)를 조성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해상풍력시범단지(400MW)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통과,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R&D 인력양성, 수소 시범도시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으로 부품개발·실증, 기업지원 공간인 테크비즈 프리자를 구축해 고성능·고안전·고기능 상용차 부품을 개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과 친환경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기술, 대용량 LNG 내압 용기, 이동식 LNG 충전소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

전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 탄소강소기업 육성 및 탄소산업 혁신사례 발굴과 탄소복합재 수소 용기 신뢰성 평가 구축을 완료해 탄소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역특화 일자리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산업 재생 및 상생형 일자리 1,7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정례화



'노란 프리지어 활짝'

임춘을 앞둔 2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 중인 프리지어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달콤하고 상큼한 프리지어 향기는 불안 완화 효과와 함께 기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북 금융산업 인지도도를 제고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힘쓴다.

특히, 금융타운의 핵심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조기 확정 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준공과 금융기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내에 특별한 관광지 발굴

과 지역 맞춤형 영상홍보 마케팅, 뉴노멀 시대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소규모 여행 지원 등 지역특화 관광개발로 전북여행 매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를 구축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한다.

아울러,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지원사업 발굴 및 현장중심 사무국 운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해 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활습관 개선 등 생활의 과학화 도민운동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점 영업장 등의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정 전북'을 구현한다.

최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도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 향토자원 발굴 산업화 본격 추진

완주·김제 '로컬푸드' 순창 '친환경 쌀' 육성

전북도가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향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도내에 17억2,000만원을 투입해 순창군과 김제시, 완주군 총 3개소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2·3차 산업과 연계, 발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향토자원은 2007년 완주군의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34개의 소중량 지역특화 품목이 발굴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완주의 봉동생강, 소양철쭉 ▲김제의 지평선 황금보리, 국산밀 ▲군산의 한할쌀보리, 녹색통곡물, 박대 ▲정읍의 자생차, 귀리, 구절초 ▲남원의 오디, 추어탕, 허브신제품 ▲임실의 치즈, 양념산업, 과수 ▲고창의 황토테마관광, 황토지일, 황토고구마 등 다양한 지역의 특화 품목이 발굴됐다. 올해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발효산업을 비롯해, 지난 2019년도 김제시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2018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순창군의 친환경쌀 활용도 평가 농생명산업이 4년 만에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교유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타 산업과 연계, 부가가치를 높인 농가 소득 증대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대책으로 보고, 더 많은 지역의 향토자원이 발굴·활용되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울산 교사에 이어 대학교수도 '엄마의 밥상' 후원

설경원 전북대 교수, 성금 1000만원 기탁... 정기 후원자 증가로 현재 기준 누적 후원금액 8억4200만원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주 '엄마의 밥상' 사업에 연일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설경원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2일 전주시장을 찾아 '엄마의 밥상' 사업에 활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1983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

을 가르쳐온 설경원 교수는 오는 8월 퇴직을 앞두고 받은 은퇴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성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에 앞서 전남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박현준 씨(42)가 3시간 30분을 달려와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1,000만원을 내놓았다.

정기적인 후원도 늘어나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고 있는 (주)대우글로벌(대표 박건민)은 지난해 12월부터 '엄마의 밥상' 사업에 매월 1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울산에서 특수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최 모씨도 아이들의 편지가 나온 뉴스를 보고 본인이 배고팠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100년간 매

월 정기후원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40~50대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햇살동호회'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매월 후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 빠짐없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기부해주고 있는 개인 후원자도 15명에 이르는 등 선한 영향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엄마의 밥상' 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첫발을 댄 이후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누적 후원금액이 8억4,200만원에 달한다. 성금뿐만 아니라 빵, 쿠키, 과일 등 간식에서부터 한우, 우육탕, 김치 등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기부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